

日, 반도체 복귀 시동… ‘韓·中·대만’ 중심 생산구도 깨지나

일본 라피더스, 2027년 2공장 착공
2나노 이어 1.4·1나노급 개발 계획
日 정부,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지정
‘소부장 자체조달’ 개발속도 빨라들

한국과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구축된 동아시아 반도체 생산 구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술 지원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라피더스가 2나노에 이어 1.4나노급 공정까지 연구개발 계획을 제시하면서 중장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라피더스는

2027년 홋카이도 치토세 지역에 제2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제1공장에서 2나노 공정을 개발 중이며 지난 7월 2나노 시제품 제작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1.4나노와 1나노급 제품의 연구·개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정부와 민간 출자로 설립된 라피더스가 두 번째 생산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첨단 파운드리 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를 전략 기술로 명시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내년 3월 이전 수립할 5개년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세제 혜택과 창업 지원 인

력 양성 우호국 협력 등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면 라피더스와 TSMC 구마모토 공장 등 일본 내 생산거점의 역할도 더욱 커지게 된다.

또 현재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소부장 생태계가 이번 파운드리 진입 시도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시장의 절반 이상, 장비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토레지스트 CMP 슬러리 실리콘 웨이퍼 등 주요 공정 요소를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과 무관하게 자국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소재와 장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어 첨단 공정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인 후지필름은 지난 25일 시즈오카 공장에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실험가동 완공을 알렸다. 2026년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1000억엔(한화 약 9400억원) 투자를 공언하는 등 기업 차원의 대규모 투자 역시 지속되고 있다. 월간 반도체 장비 출하 지표 역시 2023년 약 2890억엔(약 2조7200억원)에서 2025년 9월 4246억엔(약 4조원)까지 증가해, 2023년 글로벌 다운사이클 이후 부진을 벗어나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만·한국이 선단공정, 중국이 생산 캐파를 주도해온 기존 3국 구도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에서 이미 두드러진 경쟁력

을 갖추고 있어, 파운드리 공정이 안정화될 경우 로직 생산 분야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와 HBM 중심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본격적인 파운드리 진입은 첨단 로직 분야에서 새로운 장기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반 자체는 약해졌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과는 큰 격차가, 중국과도 어느 정도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다만 세계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반이 이후 제조 복귀의 큰 자산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희준 기자 nauta@metroseoul.co.kr

삼양사-세프라텍, 초순수용 탈기막 협력

국내 유일, 세계 2번째 ‘탈기막 생산’
내년 中 수처리 전시회 공동관측 전개

삼양사는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세프라텍과 반도체 초순수용 탈기막(MDG)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탈기막은 물에 용해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용존 가스를 제거하는 장치다. 반도체 생산의 필수재인 초순수(극히 순수한 물)는 미세한 이온이나 기체조차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 용존 가스 농도를 극도로 낮추는 탈기막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세프라텍은 산업용 반도체 초순수용 탈기막 모듈을 개발한 국내 유일의 탈기막 전문업체로, 특수 제작한 분리막을 통해 초순수 내 용존 산소를 1ppb(10억분의 1) 이하로 제거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탈기막 생산에 성공한 기업은 미국의 3M사에 이어 국내의 세프라텍이 두 번째다. 이번 협약으로 삼양사



조영도 삼양사 PU장(오른쪽)과 염충균 세프라텍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 삼양사 본사에서 반도체 초순수용 탈기막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양사

는 수처리 소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처리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세프라텍은 탈기막을 공급하는 동시에 삼양사의 이온교환수지 판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판로 확대에 나선다. 내년 6월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수처리 관련 전시회 ‘WATERTECH CHINA 2026’에 참가해 공동으로 판촉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삼양사 조영도 워터솔루션(WS) PU장은 “세프라텍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반도체 초순수용 탈기막을 개발한 국내 선도기업으로, 삼양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보고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삼양사는 해외 수처리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한편, 초순수용 소재 국산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가볍게 떠나요” 항공업계, 외투보관 서비스

대한항공·아시아나, 해외출국 승객
인천공항서 최대 5일간 무료보관

국내 항공사들이 겨울철 따뜻한 국가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두꺼운 외투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재개한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코트룸’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대형 항공사(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서비스를 진행한다. 코트룸 서비스는 겨울철 급증하는 동남아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항공은 2005년, 아시아나항공은 1999년부터 매년 겨울 시행해왔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에게 1인당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간 보관한다. 5일 초과 시에는 인천공항 기준 한 벌당 2500원, 김해공항 기준 한 벌당 4000원의 추가 보관료가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승객의 겨울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코트룸(Coatroom)’ 서비스를 재개한다.

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간 무료로 보관해 준다. T1 출발 승객은 지하 1층 서편 끝에 위치한 ‘크린업에어’에서 탑승권을 제시하고 외투를 맡길 수 있고, 보관된 외투는 동일한 장소에서 보관증으로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 또한 24시간 운영된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에는 T2 지하 1층 교통센터 입구의 크린업에어 매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BYD코리아, 오토 송파전시장 오픈

연내 전국 30곳에 전시장 확대

BYD코리아가 서울 동남권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서울 송파구에 ‘B YD 오토 송파 전시장’을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BYD코리아는 전국 24곳에서 BYD 승용차 전시장을 운영하게 됐고 연말까지 전국 30곳으로 전시장을 확대해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송파·위례·문정·강동 등 송파권역은 서울 동남권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30·40대 젊은 부모들이 많아 자녀의 통학, 근거리 이동 등 실용성을 갖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BYD코리아는 소형 전기 SUV ‘아토3’와 중형 전기 세단 ‘쉴’,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 7’ 등 올해 출시한 차량 3종으로 송파 소비자들을 공략할 방침이다.

이번 전시장 개관을 기념해 내달 7일까지 송파 전시장에선 BYD의 프리미엄 브랜드 ‘양왕’의 대형 전기 SUV ‘양왕 U8’을 특별 전시한다. 최첨단 전동화 기술이 적용된 양왕 U8은 모래 언덕 주행, 비상시 수상 부유 운행도 가능한 하이엔드 모델이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송파 전시장은 전기차 수요가 높은 서울 동남권 고객들이 보다 쉽게 BYD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 전시되는 양왕 U8을 통해 BYD가 선보이는 기술력과 모빌리티의 내일을 미리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신일전자

가습기·온풍기·히터 겨울가전 3종 선보여

신일전자가 본격적인 추위와 건조한 날씨에 맞춰 겨울철 실내 환경 관리를 위한 계절 가전 3종을 선보였다.

신일전자는 100° C 가열식 물명가습기, 욱실 PTC 온풍기, 컨벡터 히터 등 겨울철 수요가 높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난방·가습·전력 효율 니즈를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열식 물명가습기’는 물을 100° C로 가열해 위생적인 수증기를 공급한다.

내열 강화유리 물통, 본체·뚜껑 완전 분리 구조로 세척이 용이하며 전도 스위치·차일드락 등 4중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저소음(34dB) 설계와 무드등 기능을 갖춰 취침 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정희준 기자

SK스피드메이트 ‘스피드 오토케어’ 출시

카카오 AI ‘카나나’와 연동

자동차 관리서비스 기업 스피드메이트가 AI 에이전트를 통해 운전고객의 일상에 스며든다.

SK스피드메이트는 카카오의 AI 에이전트 앱 서비스 ‘카나나’와 연동되는 차량 정비 AI 메이트인 ‘스피드 오토케어’를 출시해 AI를 활용한 차량 관리 지원 및 정비 서비스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카나나 이용자가 ‘스피드 오토케어’를 통해 차량 관리에 대해 질문하면 알맞은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변 스피드메이트 매장 추천, 실시간 예약, 정비 항목 안내까지 지원함으로써 꼼꼼하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돕는다.

‘스피드 오토케어’는 지난 10월 양사

간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실제 서비스로 구현된 것이다. 스피드메이트는 정비를 원하는 고객에게 AI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 카카오는 카나나 고객에게 온-오프라인 연결을 통한 완결적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카카오의 앱 서비스 카나나는 AI 기능을 통해 능동적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연계한 ‘스피드 오토케어’로 스피드메이트의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관리 서비스가 제공돼 고객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SK스피드메이트는 이번 서비스 개시 기념으로 카나나의 ‘스피드 오토케어’를 통해 정비 예약한 고객 대상 엔진오일 할인권을 선착순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차현정 기자 hyeon@